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잔류든 이적이든 빨리 결정하겠다”

설기현 출국 인터뷰



2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딩의 설기현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의 설기현(28)이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기현은 22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에서 “이적이든 잔류든 빨리 결정할 계획이다. 그것이 나 자신도 그렇고 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 도착하면 현지 에이전트를 만나 그동안 이적 문제가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를 듣게 된다”며 “하지만 아직 시

“수술 부위 통증 있지만 회복 속도는 빨라”

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시기는 확실치 않다. 시즌 개막 전까지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06~2007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 4도움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데뷔 시즌을 마친 뒤 지난 5월 런던에서 오른쪽 뒤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귀국한 설기현은 2개월여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국제클럽축구대회전 ‘2007 피스컵 코리아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레딩 선수단에 합류해 수술 후 처음 훈련을 했으며 19일 시미즈와 피스컵 3차전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돼 45분을 뛰며 몸이 거의 회복됐음을 알렸다.

설기현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경기하는데 문제가 없어 만족했고 회복된 모습을 보여드려 기쁘다. 수술 부위에 통증이

약간 있지만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현재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돌아가면 팀에 합류해 프레스 시즌 경기 및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도높은 훈련은 아직 무리지만 체력과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어리그 2년 차 각오에 대해서는 “한 시즌을 소화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배운 점도 크다. 잘 회복해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원, 멕시코 티그리스에 0-3 완패

월드시리즈 오브 풋볼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멕시코 1부리그 티그리스와 친선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22일(한국 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 홈디포센터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오브 풋볼 2007’ 티그리스와 2차전에서 전반에만 세 골을 내주며 0-3으로 졌다.

지난 1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1차전에서 디디에 드로그바에게 결승골을 내줘 0-1로 분패한 수원은 이로써 해외 전지 훈련 도중 치른 1.2차전을 모두 패한 뒤 귀국 길에 오르게 됐다.

수원은 첼시전과 마찬가지로 이은재, 송종국이 2007 아시안컵 대표팀으로 빠져 수문장에 김대환을 배치하고 안정환, 에두를 최전방 공격수로 이관우, 김대의, 김진우, 남궁웅을 미드필더로 출격시켰다.

포백(4-back)라인에는 왼쪽부터 양상민과 마토, 박희주, 조원희가 나란히 포진했다. 그러나 잦은 패스 미스에 수비 조직력까

지 무너진 데다 골 운까지 따르지 않아 초반부터 어렵게 경기를 펼쳐야 했다.

전반 11분 티그리스의 간판 공격수 호세 폰세카에게 선제골을 내준 수원은 3분 뒤 상대의 기습적인 역습에 윌터 가이탕에게 추가골을 내주고 말았다.

전반 28분 안정환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칩 슈트를 날렸지만 어렵게 걸리고 만 수원은 29분 수비 실수로 폰세카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했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수원의 이관우와 마토, 조원희가 잇따라 시도한 위협적인 중거리 슈트는 골키퍼 선방에 걸리거나 골대를 크게 벗어났다.

수원은 후반에 안정환과 김대의를 빼는 대신 신영록과 서동현 등 ‘젊은 피’를 투입하고 포메이션을 스리백으로 전환, 공수에 걸쳐 변화를 줬다. 그러나 후반 18분과 29분에 두의 연속 슈트가 골키퍼 정면을 향하거나 옆그물을 맞혔을 뿐 이렇다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22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공을 패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갤럭시 베컴 보러 가자... 美 3만 관중 몰려

잉글랜드 첼시전 출전

‘베컴이 드디어 왔다(Beckham Arrives)’ 22일 미국 프로축구 LA 갤럭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친선경기가 열린 캘리포니아주 카슨 홈디포센터 구장.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2·LA 갤럭시)을 보기 위해 미국 전 지역에서 구를 관중이 몰려 2만 7천 석의 관중석에서는 빈 틈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는 피크닉(잔디) 석 2천 장도 일찌감치 모두 팔렸다.

베컴이 등번호 23번이 새겨진 흰 색 홈 유니폼을 입고 후반 33분 마침내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보이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여 명의 축구 팬들은 ‘베컴!’과 ‘갤럭시!’를 연호하며 환호성을 보냈다.

일부 팬들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고

내외신 사진기자 100여 명은 경기장 양쪽 사이드에서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12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베컴이 공을 잡을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전광판도 그가 뛰는 모습을 자주 클로즈업해 분위기를 돋웠다.

미드필더 지역을 가볍게 오가며 컨디션을 조절한 베컴이 경기 종료 직전 상대 태클에 넘어졌을 때 코너킥을 칠 때는 팬들의 탄성이 축구장 전체를 찌릿찌릿 울렸다.

갤럭시-첼시전을 중계한 ESPN은 베컴 전담용 한 대를 포함해 모두 19대의 카메라를 동원했고 경기장 위를 가로지르는 이동식 카메라까지도 설치했다.

베컴은 경기 후 “경기장 분위기가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했다. 미국으로 건너 온 뒤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라운드에서 설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대답했다.



일본, 호주 꺾고 4강행



3회 연속 아시아 대륙축구 정상에 노리는 일본이 승부차기 끝에 호주를 꺾고 2007 아시안컵축구 4강에 진출했다. 이라크는 베트남을 2-0으로 완파

하고 4강에 합류했다. 일본은 21일 베트남 하노이 미딩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호주와 전·후반, 연장 120분 혈투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겼다. 일본은 작년 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1차전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호주에 당한 1-3 역전패를 13개월 만에 설욕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 승자와 25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일본을 준결승에 끌어올린 주인공은 수문장 가와구치.

가와구치는 승부차기에서 호주 1, 2번 키커 해리 뉴얼과 루카스 닐의 슈팅을 거꾸 막아내 일본에 4강 티켓을 안겼다.

이라크는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 준준결승에서 골키퍼 유니스 마흐무드가 혼자 두 골을 뽑아내는 활약으로 2-0 완승을 거뒀다.

지난 세 차례 대회 연속 8강에 머물렀던 이라크는 사상 두 번째 4강 진출에 성공했고, 동남아 공동 개최국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베트남은 8강에 만족해야 했다.

프랑스 리옹 우승

잉글랜드 볼턴 1-0 제압

피스컵 코리아 축구

프랑스 프로축구 최강 올랭피크 리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볼턴 원더러스를 꺾고 삼수 끝에 피스컵 정상에 올랐다.



프랑스 스포츠 6연패에 빛나는 리옹은 지난 21일 마포구 삼성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7 피스컵 코리아 축구대회’ 결승에서 후반 40분 칼 스트

롬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볼턴을 1-0으로 꺾었다.

2003년 제1회 대회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에인트호벤(네덜란드), 2005년에는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에 연달아 무릎을 꿇으며 준우승에 그쳤던 리옹은 세번째 도전에서 우승컵을 차지, 상금 200만달러(약 18억원)를 손에 넣었다.

주도권은 리옹이 잡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컵을 가져가겠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다.

골은 경기 종료 5분 전에 나왔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수비수 2명을 달고 현란한 개인기를 펼치던 아르파가 살짝 뒤로 밀어졌고 쇄도하던 칼 스트롬이 왼쪽으로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경기 내내 결정적 선방을 펼친 볼턴 골키퍼 야스클레이네이 몸이 던졌지만 골문 왼쪽 구석을 파고든 볼은 손끝에 스치며 그물을 출렁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앓! 인간 로켓?

22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서 워싱턴의 1루수 로버트 픽(오른쪽)이 5회 수비도중 1루주자 견제구를 잡기 위해 몸을 날리고 있다. 이날 경기는 워싱턴 내셔널스가 3-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이종범 내일 1군 복귀

프로야구 베테랑 외야수 이종범(37·KIA 타이거즈)이 24일 1군에 복귀한다.

서정환 KIA 감독은 22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현대 유니콘스와 방방경기를 앞두고 “이종범이 몸이 다 됐다”고 하더라. 24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전에 1군 엔트리에 올릴 생각이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지난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이종범이 괜찮다면 언제든 복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범은 올스타전 직후 겪은 장염 증세에서 벗어나면서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했다.

그는 전반기 57경기에 출전해 타율 0.183(18타수 3안타), 타점 11개로 오랜 슬럼프에 빠졌다가 지난 6월19일 을 시즌 처음으로 2군에 내려갔다.

이종범은 그동안 타격감을 되찾고 근력을 기르는데 구슬땀을 흘렸고 2군 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4(17타수 5안타), 홈런 1개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시즌 5승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시즌 후반기 두번째 등판에서 눈부신 호투로 5승을 올렸다.

김병현은 2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돌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면서 안타 5개와 사사구 3개로 1실점했고 팀이 11-1로 이기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올 시즌 12차례 선발등판에서 가장 긴 7이닝을 던졌고 투구수 105개 가운데 스트라이

크는 62개였다. 홈에서 3패만 당하다 첫승을 거두면서 시즌 5승5패로 균형을 맞췄고 평균 자책점은 4.79(총전 5.18)로 내려갔다.

이날 김병현은 스트라이크존 구속구석을 걸치는 칼날같은 제구력과 위기에서도 대단한 투구로 관리능력까지 돋보였다.

플로리다는 7회말 타선이 터졌다. 우드와 트레너가 연속 타자 홈런을 날려 3-1로 역전에 성공했고 김병현은 세번째 타석에서 대타 조 보차드로 교체됐다.

승기를 잡은 플로리다는 8회에 라미레스의 3점 홈런 등 안타 7개로 대거 8점을 뽑아 신시내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